

생활불편해소에관한청원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유해열

주소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9-4호

나. 소개의원 : 김삼중 의원

다. 접수일자 : 1998. 9. 16

라. 회부일자 : 1998. 9. 22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98. 10. 27)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9-4번지 소재의 연립주택 14가구 중 대한항공소유의 9가구 방치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 연립주택 지하실 상시 침수로 주택안전 위협 및 위생 불결로 생활 불편 가중
 - 9가구를 약 8년간 공가로 방치 폐가화 및 우범지대화되고 있음
 - 대한항공엔진공장 입주 후 생활하수 배수에 많은 불편 초래

3. 취지설명요지(취지설명 : 김삼중 의원)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9-4번지 소재의 연립주택 14가구 중 대한항공이 9가구를 매입한 90년 9월 12일 이후 장기간 방치로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었고
- 대한항공과 입주민들과의 대화 단절로 깊은 불신이 있어 부천시가 입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불신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조치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지하실 침수의 원인은?	○ 1층가옥의 생활하수관(PVC관)의 파열로 인한 것 같으나 침수로 인해서 정확한 원인은 아닌 것 같음
○ 동연립주택의 민원을 방치한 이유는?	○ 98. 7. 25 건축물 유지관리 통보를 대한항공에 통보하였고 이해관계인들과 회의를 하여 대한항공에서 일부 보수공사를 한 바 있음.
○ 가옥의 방치에 대한 책임은 대한항공에 있는 것이 아닌지?	○ 소유주인 대한항공에서는 입주자로서의 성실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임.

<p>○ 대한항공에서 가옥을 장기간 방치한 이유는?</p> <p>○ 입주민의 불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p>	<p>○ 대한항공과 입주민들과의 대화 단절로 깊은 불신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 5세대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p> <p>○ 주택건설촉진법, 위생관련법 등을 총점검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	--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 생활불편해소에 관한 청원의견서 1부. 끝.

의안번호		안 건 명	생활불편해소에관한청원
소개의원	김 삼 중	의 결 년 월 일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98. 10. 27)


생활불편해소에 관한 청원 의견서

오정구 삼정동 69-4번지에 소재한 연립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대한항공이 동 연립의 9세대를 매입한 90. 9. 12 이후 약 8년간 공가로 방치, 소유자 및 입주자로서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5세대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생활불편 원인은 대한항공에 있다고 판단되니 부천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의 확대 적용으로 조속히 현 입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을 촉구함.

1998년 10월 27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생활불편 해소의 건		
청원인	주소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9-4호	
소개의원	성명	유해열 	주민등록번호
소개년월일	1998. 9. 11		

소개의견

- 오정구 삼정동 69-4호 연립주택은 79년 11월에 준공된 노후되고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건축물로서 동 가옥에 거주하는 5세대는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
- 특히 인근에 위치한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에서 공장확충계획에 의하여 동 연립주택을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 2층 전체를 매입한 후 수년 간 방치하여 연립주택을 폐가화하여 1층 천장이 물이 새고 우범 지대화되고
 - 배수도가 있는 곳에 공장 담을 세워 연립주택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연립주택 지하층에 항상 물이 고여 있어 건물의 골조가 부식되어 안전위험과 각종 해충으로 인하여 전염병 위험이 있음.
- 연립주택 거주 주민들과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시켜 이들의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함

청 원 서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우리 진정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9-4 지상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살아왔던 영세민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은 본래의 구조가 전면에서 볼 때는 주거용인 지상 2층과 상가주택 겸용인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1층으로 된 건물입니다만 반대로 후면에서 볼 때는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별첨된 도면 참조)

이 연립주택의 대지 동쪽 경계선에는 본래부터 배수로가 있어서 인근의 무수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와 생활오수 등이 원활하게 흘러서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날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이 배수로가 있는 곳에 담장을 설치하고 자기쪽 대지에는 상당한 높이로 매립을 하였습니다.

배수로는 갑자기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후는 흘러갈 곳이 막혀버린 오·폐수가 반대로 지대가 낮아진 우리 연립주택 지하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침 지하에 있었던 영세공장이 이 사태에 놀라서 황망히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이곳에는 그때 1미터나 넘게 들어온 오·폐수가 지금도 그대로 썩고 있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해충의 온상이 되어서 전염병이라도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건축당시 대용량의 정화조를 묻었는데 물 속에 잠겨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장기침수로 인하여 건물의 곰조가 눈에 띄게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붕괴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안을 느낀 세대는 이미 피신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이에 대하여 가해를 가한 (주)대한항공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피해자인 진정인들이 가해자인 대한항공측에 원상복구를 수차 진정하였어도 마이동풍이란 말이 이처럼 실감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이란 강자 앞에 먼지 같은 약자의 존재가치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있는 불행한 참사가 돌발했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명을 최상으로 여기겠으나 대기업은 하찮은 일쫓으로 여기는 것같이 보여 비통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가해자의 만행은 다시금 계속 되었습니다.

(주)대한항공은 연립주택의 지상 2층 부분이 자기네 소유라면서 마구잡이로 때리부셔서 철거하는 바람

에 아래층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새서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공동건물의 일부가 자기소유일지라도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여 건물의 형태나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가해자 (주)대한항공의 계속되는 물지각한 만행에는 역부족인 진정인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해자의 불순한 저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횡포와 만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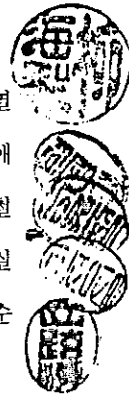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가해자 (주)대한항공에 대하여 행정적이든 법적이든 침수된 곳에 원상복구하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진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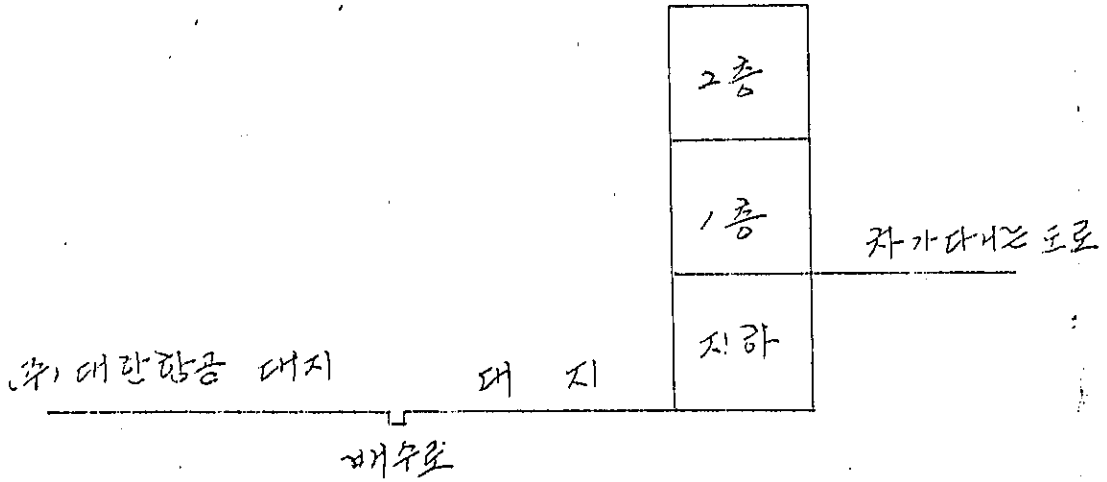
별첨 도면 1통

1998년 9월 14일

위 진정인	유 해 열
진정인	변 정 애
진정인	이 윤 철
진정인	민 성 실
진정인	문 현 순



연립주택의 본래 모습



파괴된 이후의 모습

